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디자인 특성

The Knitwear Characteristics in Paris Men's Collection

이 승 아¹, 이 연 희^{2*}

한남대학교 의류학과¹, 한양대학교 의류학과²

Seung-A Lee¹, Younhee Lee^{2*}

¹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some directions for the design of men's knitwear and some basic data helpful for design conception and product development for creative and unique men's knitwear. As for methodology, the investigator examined 850 works of five designers from Dries Van Noten, Hermes, Christian Dior, Louis Vuitton, Paul Smith that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the men's Paris Collection for the last ten years from 2001 S/S to 2010 S/S, identified the design elements expressed with knitwear, categorized examples for each element, and reviewed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designers usually adopted the straight-silhouette, after which the slim tubular silhouette became prevalent. Most of the designers made knitwear with normal yarn and expressions through dyeing or printing regardless of seasons, which meant the usage level of fancy yarn was low. The much usage of the basic pattern was particularly salient. The most popular basic structure was plain, which was followed by rib and color pattern, which included the jacquard and intarsia pattern. The designers presented thick outer items made of thick yarn for F/W seasons and many thin inner items made of thin yarn for S/S seasons. The popular colors were brown from the Red Group(R) and khaki from the Green Group (YG) regardless of seasons. When achromatic colors were used a lot, there was a development of various grey shades. For plain, which was the most used basic structure, the designers employed such technical methods as printing, pleat processing, and dyeing processing in high frequency. This study will offer some fundamental directions for future knitwear design as a primary study on the formative elements among the knitwear trends in the collections of men's knitwear.

Key words : Men's Knitwear, Paris Men's Collection, Knit design elements, Knitwear Design Characteristic

주제어 : 남성 니트웨어, 남성 파리 컬렉션, 니트디자인 요소, 니트디자인 특성

Received July 7, 2014; Revised August 27, 2014; Accepted October 6, 2014

1. 서론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의 '한국패션마켓트렌드 2011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남성복시장이 여성복 시장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하반기 남성복 패션 시장규모는 7조 2740억 원으로 여성복 패션시장규모의 7조 1570억 보다 크게 기록된 이후 2010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여성복 패션시장 규모를 앞질렀다("Woman's Fashion Market", 2011). 2010년 우시쿠보 메구미의 베스트셀러 '초식남이 세상을 바꾼다'에서도 초식남들은 현재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욕망이 클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은 패션과 뷰티에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대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내에서 남성 중심의 권력체계가 변화되고, 남성성을 형성하는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미의 기준이 변화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전반에 두드러진 현상으로써 남성들이 가지게 된 여성스러운 취미와 성격, 감수성이 있는 취향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패션과 뷰티 분야까지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남성복은 최근 모든 부분에서 컨템포러리 감성을 추구하면서 캐주얼화되고 있는데("Men's Wear", 2011), 이러한 분위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니트웨어라 할 수 있다. 니트웨어는 20세기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캐주얼 패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많은 수요를 갖게 되었고, 토탈 패션으로

*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 82-2-2220-1195, E-mail : yiyhee@hanyang.ac.kr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아이템일 뿐 아니라 아우터 웨어, 액세서리 등 폭 넓은 아이템의 디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니트웨어는 우리가 입는 의류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우리 삶의 많은 방면에서 기성복, 스포츠웨어, 잠옷, 란제리와 같은 의류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본다면 루프구조의 원단인 니트 의류를 쉽게 볼 수 있다(Lisa & Marilyn, 2008). 과거 니트웨어는 아우터 웨어의 보조 아이템으로 인식되었으나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와 캐주얼 시장의 확대로 니트 아이템이 차지하는 영역이 폭넓게 다양화되었다. 니트 아이템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 등에 대응하여 니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시장 파악과 트렌드 분석에 의한 기획프로세스는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남성컬렉션에서 나타난 남성 니트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니트디자인 개발에 바탕이 되는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남성니트웨어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으로 파리컬렉션을 선택하였는데, 파리컬렉션은 밀라노컬렉션과 함께 양대 남성복 컬렉션으로 유명하고, 파리가 오프꾸뛰르의 발생지로 컬렉션문화를 시작하였으며(Kim, 2004), 프레타포르테가 1948년에 시작되어 밀라노컬렉션보다 역사적으로도 의의를 갖는다는 근거한다(Lee & Kim, 2004). 최근 10년간의 파리컬렉션 중 2001 S/S~2010 S/S 까지 19시즌의 컬렉션에 모두 참여한 디자이너 5명을 선별하였다.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 에르메스(Hermes),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루이비통(Louis Vuitton), 폴스미스(Paul Smith) 컬렉션에서 수집한 사진자료 850장을 니트웨어 디자인의 기본이 되는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I. 니트디자인의 요소

니트는 편성방법과 편직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편성방법에 따라 수편과 기계편으로 나뉘며(Hong & Choi, 2009), 기계에 의한 니트조직은 니트를 편직하는 방법에 따라 위편기와 경편기로 나뉜다. 위편기에는 횡편기와 환편기가 있는데, 이는 한 가닥의 실이 급사되어 베드에 있는 모든 바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며 편직이 이루어지는데, 베드가 일자형이거나 원형인 차이가 있다. 경편기는 횡편기의 형태이나 니들바 내의 모든 바늘에서 급사와 루프형성이 각각 이루어지는 편기로, 트리코트 편기, 라셀편기, 밀라니즈편기가 있다. 다양한 편기는 니트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스웨터로 불리는 헨드니트 및 횡편기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니트웨어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복식의 조형요소는 조형예술의 요소와 같이 크게 형태, 색채, 재질, 무늬를 들 수 있으며 각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며 디자인이 성립

된다(Kim, 2004). 의복에서의 형태는 선, 실루엣으로 표현되며, 재질, 무늬는 의복의 소재에 의해 나타난다.

1. 실루엣

의복의 실루엣은 선으로 지각되는 가장 강한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착용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외곽선으로 허리를 기준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 배럴 실루엣(Barrel silhouette) 세가지로 크게 나뉘며(Lee, 1975), 니트웨어의 실루엣은 니트가 가지는 드레이프성과 유연성으로 다른 직물 소재에 비해 신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따르는 실루엣을 가진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몸에 맞는 정도에 따라 시스 실루엣(Sheath silhouette), 박시 실루엣(Boxy silhouette), 시프트 실루엣(Shift silhouette), 튜블러 실루엣(Tubular silhouette), H실루엣이 속한다.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에는 프린세스 실루엣(Princess silhouette), 크리놀린 실루엣(Crinoline silhouette), X형이 속하며, 배럴 실루엣에는 오벌 실루엣(Oval silhouette), 벌크 실루엣(Bulk silhouette)이 속한다.

2. 재질과 무늬

재질과 무늬는 복식의 재료인 옷감의 재료, 종류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데, 니트는 원사에 따라 편직 후 스와치의 두께나 밀도 등이 다르고, 조직에 따라서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Lee & Lee, 2009).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사의 종류, 편직 방법에 따른 여러 조직, 게이지, 배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편직이나 봉제가 완성된 후에 추가되는 장식방법에 따라 완성된 니트 디자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니트의 원사는 만드는 과정에서 직물용 원사와 성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직물용 원사보다 꼬임이 적고, 보다 유연하다는 차이가 있다. 니트용 원사는 크게 재료, 굵기,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원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은 단사 또는 교합사와 텍스처에 변화를 준 장식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장식사는 섬유의 종류, 실의 꼬임, 실의 굵기, 색상, 연사방법, 편성방법, 실의 절단, 이물질의 첨가 등으로 시각적으로 독특한 형태와 다양한 표면 효과를 갖는다(Park et al, 2006).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장식사는 넵사(Nep yarn), 슬럽사(Slurb yarn), 멜란지(Melange yarn), 물리네(Mouline yarn), 튜브사(Tube yarn), 셔닐사(Chenille yarn), 루렉스사(Lulex yarn) 등 다양하다.

니트의 조직은 크게 기본조직, 변화조직, 컬러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조직은 플레인(Plain), 리브(Rib), 펄조직(Purl), 인

터록(Interlock)으로 크게 나뉘고, 변화조직은 이 기본조직들을 캠의 조작, 바늘의 배치, 루프의 이동 등으로 변화를 주어 표현되는 조직으로 플레인의 변화조직으로 레이스(Lace), 터크(Tuck), 프레스 오프(Press-off), 케이블(Cable)과 피셔맨(Fisherman)으로 나누어진다. 리브의 변화조직은 다양한 간격의 리브(Rib) 변형조직, 하프 가디건(Half Cardigan), 풀 가디건(Full Cardigan), 밀라노(Milano), 하프 밀라노(Half Milano), 랙킹 스티치(RackingStitch)가 있다. 컬러가 들어가는 조직으로는 컬러 자카드(Jacquard), 인타샤(Intarsia), 스트라이프(Stripe), 플레이팅(Plating)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Lee & Lee, 2012). 조직의 크기나 자카드 조직이나 인타샤 조직과 같이 패턴의 변화에 따라 시각적 변화를 줄 수 있고, 편직물의 특성이 다양하게 표현된다(Park, 2011). 앞에서 언급된 조직들이 섞여있는 혼합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횡편기는 인치당 바늘수인 영국시스템을 바탕으로 측정된다(David, 1989). 일반적으로 게이지 범위는 2.5게이지부터 18게이지까지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2게이지 이상을 하이 게이지(High Gauge), 7~10 게이지를 미들 게이지(Middle Gauge), 5게이지 이하를 로우 게이지(Low Gauge)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장식은 형태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형은 구조적인 것과 응용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적 장식은 소재 자체가 가지는 장식적 효과를 가지는 우연적인 것과 가공공정에서 만드는 의도적인 것이 있으며, 응용 장식은 소재가 만들어진 후 첨가되는 장식을 말한다(Cho & Lee, 2004). 니트도 앞에서 살펴 본 편직으로 나타나는 조직과 문양뿐 아니라 추가로 이루어지는 장식을 포함하여 재질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표면 장식기법은 수공예적 장식기법과 가공기술에 의해 표현되는 소재의 변화 가공으로 나눌 수 있다. 수공예기법은 입체감을 주는 유형에 따라 퀴팅, 주름, 자수, 절개, 부착 등으로 나뉘지며 부착은 사용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비딩, 애플리케, 패치워크, 엮기, 술장식 등이 있다. 가공기술에 의한 기법은 물리적, 화학적 가공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프린팅, 염색, 주름, 워싱, 코팅가공을 들 수 있다. 프린팅 기법은 다양한 도구에 따라 스크린, 블록, 롤러, 디지털 프린팅으로 분류된다. 염색은 대부분 원단에 인공적이나 천연염색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방염법과 타이다잉(Tie-dyeing)이다. 워싱가공은 바래지거나 낡은 듯한 효과를 줄 수 있고, 방수가공이나 왁스코팅으로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 워싱이나 열을 이용하여 구김이나 주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Richard & Jenny, 2006).

3. 색채

색채는 복식의 형태와 함께 복식의 존재를 구체화시키는 시

각적 디자인 요소이다(Kim, 2004). 색은 명도, 채도, 색상의 측면에서 특성을 결정하는데, 색상은 대표적으로 멘셀의 표색계를 사용하여 빨강(Red - R), 노랑(Yellow - Y) 녹색(Green - G), 파랑(Blue -B), 보라(Purple - P)와 확장그룹 주황(Yellow red - YR), 연두(Green yellow - GY), 청록(Blue green - BG), 남색(Purple blue - PB), 자주(Red purple - RP) 10가지로 나누어진다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2002).

색조 그룹은 명도와 채도를 톤의 개념으로 하여 색상과 톤의 관계로 PCCS체계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하면 옅은 색조(lt-light), 부드러운 색조(sf-soft), 둔한 색조(d-dull), 어두운 색조(dk-dark), 강한 색조(s-strong), 선명한 색조(v-vivid)와 회색조(g-grayish), 밝은 색조(b-brilliant)로, 짙은 색조(dp-deep), 옅은 색조(p-pale), 연한 회색조(ltg-light grayish), 어두운 회색조(dkg-dark grayish), blackish 로 나뉜다(大井義雄 & 川崎秀昭, 2007). 이를 다시 크게 화려한 톤, 밝은 톤, 차분한 톤, 어두운 톤, 무채색 톤으로 묶어 5가지 톤으로 나눈다(Park & Lee, 1998).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의 조형요소와 니트디자인의 특성을 더하여 실루엣, 원사, 조직, 게이지, 장식기법, 색채로 분류하여 니트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Table 1>.

Table 1. Elements of Knit Design

Division		Characteristics
Shape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Hour-glass silhouette, Barrel silhouette
	Yarn	Normal Yarn, Fancy Yarn
Texture	Structure	Basic Structures, Variation Structures, Color Structures
	Gauge	High Gauge, Middle Gauge, Low Gauge
	Decoration	Quilting, Embroidery, Slashing, Applique, Patchwork, Biding, Fringe, Dyeing, Pleats, Coating
Color	Hue, Tone	

III. 파리 남성컬렉션에 나타난 니트디자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남성 니트웨어의 경향을 2001 S/S~2010 S/S 시즌까지 파리 컬렉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0년간의 파리컬렉션을 매년 참여한 5명의 디자이너로 드리스 반 노튼,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루이 비통, 폴 스미스를 선별하였다. 니트웨어의 디자인 요소를 실루엣, 원사, 조직, 게이지, 장식기법, 색채로 분류하여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루엣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니트웨어 고유의 특성을 극대화시키며 신체의 실루엣 또한 잘 살려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체 사진자료 850장 중 아웃웨어와 스타일링되어 실루엣을 파악할 수 없는 203장을 제외한 647장의 자료에 나타난 실루엣은 <Fig. 1>과 같다. 계절 특성 상 FW시즌에 볼륨있는 아우터나 폴오버에 의한 배럴실루엣이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오히려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2002S/S부터 2003F/W까지 증가하다 2005S/S까지 다시 감소하였으며, 이후 증가와 감소가 반복하여 나타나다가 2008S/S부터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아워글라스 실루엣은 3~4년을 주기로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대부분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니트웨어의 조직과 사이즈에 따라 몸과 여유분의 정도가 달라 몸에 비교적 맞는 시스실루엣<Fig. 2>, 허리부분에 여유가 있는 박시 실루엣<Fig.

3>, 가늘고 긴 튜블러 실루엣<Fig. 4>로 나뉘었다. 폴오버는 몸판의 단이 골반부분을 조여 몸판의 허리부분이 여유있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많았다. 이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어 니트소재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리브조직을 사용하여 몸에 잘 맞게 남성 신체를 나타내어 아워글라스 실루엣의 X실루엣느낌으로 조직과 신체가 잘 부합되는 형태도 많았다(Fig. 5). 이 실루엣은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시즌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복에서 X실루엣이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듯이 리브조직으로 남성미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로우 게이지의 긴 카디건 경우 로우 게이지로 편직되어 여유분이 많아 H실루엣에 가까운 배럴형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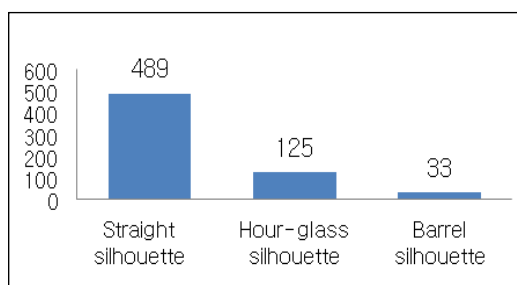


Fig 1. Silhouettes in 2001~2010



Fig. 2. Straight silhouette
- Sheath silhouette
2001 F/W
Dries Van Noten



Fig. 3. Straight silhouette
- Boxy silhouette
2004 F/W
Paul Smith



Fig. 4. Straight silhouette
- Tubular silhouette
2004 S/S
Dries Van Noten



Fig. 5. Hour-glass silhouette
- X silhouette
2007 F/W
Dries Van Noten



2010 F/W
Paul Smith



Fig. 6. Barrel silhouette
- Oval silhouette
2004 F/W
Dries Van Noten

2. 재질과 문양

1) 원사

원사의 사용은 <Fig. 7>과 같이 시즌구분이 없이 장식사의 사용은 97개로 많지 않았다. 빈도 5이하의 기타원사로 네프사, 스페이스 다잉, 루렉스, 날개사 등이 나타났다. 일반사를 사용하여 단색 니트웨어가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컬러패턴에 의한 표현으로 스트라이프 조직, 몸판이나 소매의 단, 네크라인의 이색 매치에 의한 표현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F/W 시즌에 장식사를 사용한 로우 게이지 니트웨어가 낮은 빈도이나 S/S시즌보다 많이 나타났다. 모헤어는 2001 F/W, 2007 F/W 두 시즌에 전체 시즌 사용빈도의 80%가 사용되었다. 2008 S/S에는 일반원사만 나타났고, 다른 시즌에서 장식사의 사용은 5~20%를 넘지 않았으나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다. 드리스 반 노튼이 다양한 원사로 니트웨어를 선보였는데, <Fig. 8>과 같이 2001 F/W, 2007 F/W에 헤어원사를 사용하였고, 2002 S/S 시즌에서 <Fig. 9>와 같이 멜란사인 스페이스 다잉 원사를 사용하였고, 2004 F/W에는 <Fig. 10>과 같이 로빙사를 활용하였다. 에르메스는 F/W시즌에 멜란지사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2004 F/W, 2005 F/W, 2007 F/W, 2008 F/W시즌에 나타나고 있었다(Fi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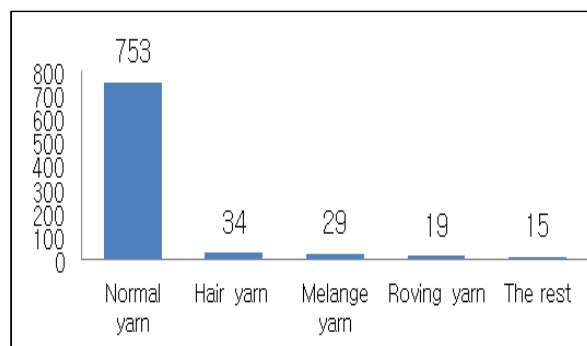


Fig 7. Yarns in 2001~2010



Fig. 8. Hair Yarn
2001 F/W
Dries Van Noten



Fig. 9. Space dyed Yarn
2004 S/S
Dries Van Noten



Fig. 10. Roving Yarn
2004 F/W
Dries Van Noten



2004 F/W
Hermes



Fig. 11. Melange Yarn
2005 F/W
Hermes



2008 F/W
Hermes

2) 조직

2001년 이후 10년간의 모든 시즌에서는 기본조직이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었고, 컬러조직, 변형조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조직에서는 플레인 조직이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은 리브조직이었다. 플레인 조직은 단색으로 많이 표현되었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사용이나 부분 배색에 의한 표현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컬러조직에서 자카드 조직과 인타샤 조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혼합조직의 대부분은 케이블과 피셔맨, 리브조직의 혼합으로 나타났다(Fig. 12). 2가지 이상의 혼합조직, 컬러 자카드 조직, 리브 변형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두드러지게 S/S시즌보다 F/W 시즌에 많이 나타났다. 2007년 이후로 플레인 조직사용 빈도가 연도별 전체 조직에서 현저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된 조직의 다양성이 떨어졌다. 2005년 이전에는 플레인 조직 이외에 5개 이상의 다른 조직이 빈도수는 높지않으나 계속 사용되었다.

리브조직은 전체 시즌 중 2001 S/S부터 2005 F/W까지 비교적 많이 나타났고, 그 이후 시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즌과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2001 F/W시즌과 2005 F/W시즌에 사용되었고(Fig. 13), 2003 S/S시즌에는 에르메스 작품에 그림과 같은 리브조직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리브조직의 사용으로 X실루엣이 나타났으나 루이 비통은 2003 F/W 시즌에 리브조직과 리브변형조직을 사용하였으나 케이지와 원사에 의해 몸의 실루엣이 살아나지 않았다.

자카드 조직은 F/W시즌에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편직의 특성 상 여러 컬러를 사용하여 문양을 나타내면 조직이 두터워지는 현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에르메스의 작품에서 사용된 빈도가 높았는데, 2005 F/W시즌에 하운드 투스 무늬의 자카드, 2006 F/W, 2008 F/W, 2009 F/W시즌에 기하학 무늬를 사용하여 레트로한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보였다(Fig. 14).

인타샤 조직은 2004 F/W시즌에 드리스 반 노트, 에르메스, 폴 스미스가 사용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다. 회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으로 폴스미스는 전 시즌에 꾸준히 이 조직을 많이 사용했는데, 2003 S/S에 팝아트적인 효과의 별무늬, 2003 F/W에 칸딘스키의 회화작품, 2004 F/W에는 해군을 상징하는 닻 모양, 2005 F/W에 에스닉한 무늬, 2008 S/S시즌에 기하학의 컬러 블랙 등 다양한 패턴으로 사용하였다(Fig.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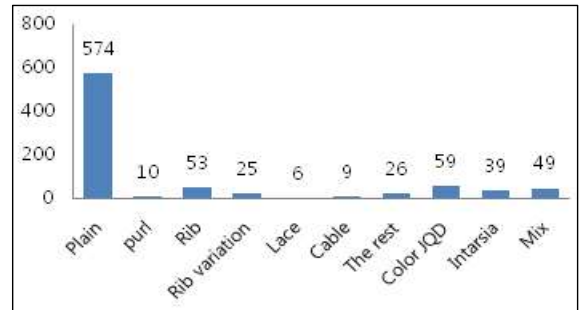


Fig 12. Structures in 2001~2010



Fig. 13. Rib Structure
2001F/W
Paul Smith



Fig. 14. Color Jacquard
2006 F/W
Hermes



2009 F/W
Hermes



2003 F/W
Paul Smith



Fig. 15. Intarsia
2003 F/W
Paul Smith



2008 S/S
Paul Smith

3) 게이지

대부분 시즌 구분이 없이 가는 원사로 얇은 상의아이템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나<Fig. 16>, 시즌의 특성상 미들게이지와 로우게이지는 F/W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로우게이지는 2004 S/S, 2005 S/S를 제외하고 모든 시즌에 나타났으며, 전체 시즌 중 2002 F/W에서 사용된 게이지 중 하이게이지의 빈도가 미들게이지와 로우게이지를 합한 빈도보다 유일하게 낮게 나타났다. 2002 F/W부터 2005 F/W까지 하이게이지의 빈도가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7 F/W에 줄어든 후 그 이후 시즌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로우 게이지<Fig. 17>에서는 S/S시즌에 원사 텍스처를 살리거나 케이블 조직과 같은 조직을 사용하여 이너웨어로 스타일링해서 제시하고 있었다. F/W시즌에는 헤어가 있는 원사를 플레인이나 컬러 자카드로 풍성한 느낌의 상의아이템을 제시하고 있었다. 미들 게이지로는FW시즌에 방모원사를 사용한 플레인 조직의 아이템이나 SS시즌에 조직감을 살려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Fig. 18). 하이 게이지로 FW시즌에 터틀넥 폴오버를 이너웨어로 스타일링 하거나 컬러 자카드 조직으로 두께감을 더하여 아웃웨어로 나타나기도 하며 하이게이지의 특성을 살려 시스루 효과를 표현하기도 하였다(Fig.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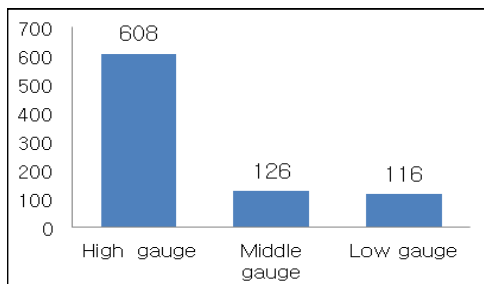


Fig. 16. Gauges in 2001~2010



Fig. 17. Low Gauge
2010 S/S
Hermes



Fig. 18 Middle Gauge
2006 F/W
Dries Van Noten



Fig. 19. High Gauge
2009 F/W
Louis Vuitton

4) 장식기법

장식기법이 나타난 니트웨어의 빈도는 매우 낮았으나 가장 많이 사용된 플레인 조직 안에서 장식기법이 두드러지게 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20). 기본조직 중 플레인에서 사용된 장식기법은 크게 분류하여 보았을 때 자수기법, 타소재 패치, 배색을 포함하는 수공예적 기법이 후가공에 의한 기법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 자수기법과 가공기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S/S시즌에는 수공예적 장식기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F/W시즌에는 장식기법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후가공은 2001 S/S, 2005 F/W, 2008 F/W, 2009 S/S시즌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4 F/W에는 해당 시즌의 장식기법 중 90%를 차지하였다. 자수기법은 2003 F/W부터 2006 F/W에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Fig. 21>에서와 같이 폴 스미스와 드리스 반 노튼이 주로 사용하였다. 폴 스미스는 2003 F/W에 다양한 장식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와펜을 덧붙이거나 아플리케, 타이다잉, 프린팅 기법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공은 프린팅 기법이 많이 나타났고(Fig. 22), 전체 기간 중 03FW시즌에 폴 스미스 컬렉션에서 비교적 두드러졌다. 염색기법은 <Fig. 23>과 같이 폴 스미스가 2003 F/W, 2004 F/W두 시즌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인 조직에서 여러 장식의 방법보다 수공예적 장식의 일종으로 옷을 만드는 과정 중에 취해지는 배색의 방법에 의한 표현의 빈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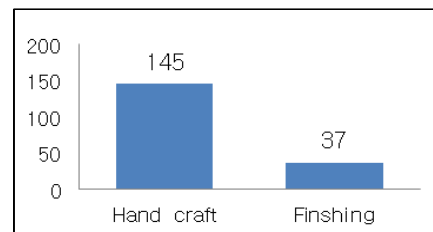


Fig 20. Decoration Techniques in 2001~2010



Fig. 21. Hand Craft
2006 F/W
Paul Smith



Fig. 22. Printing
2002 F/W
Dries Van Noten



Fig. 23. Dyeing
2004 F/W
Paul Smith










3. 색채

전체적으로 시즌과 상관없이 브라운 계열과 그린 계열의 색채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F/W 시즌에는 빨강 계열의 색채가 더불어 많이 나타났고, S/S 시즌에는 파랑계열이 사용되었다.

포인트 컬러로 자주계열, 연두계열, 노랑계열의 높은 채도를 가진 화려한 톤의 색채들이 SS시즌에 사용되고, FW시즌에는 낮은 톤의 어두운 톤을 가진 색채가 사용되었다. 무채색의 빈도는 매우 낮았으나 07SS시즌에는 화이트에서 그레이, 블랙까지 다양한 무채색톤으로 나타났다. 색상의 경향은 다음<Table 2>와 같다. 톤은 무채색톤이 다양한 그레이 컬러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화려한 톤에는 연두계열, 주황계열, 자주계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어두운 톤으로 자주계열과 빨강계열 색상이 많았다.

2001 S/S~2010/11 S/S 남성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디자인 요소별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2. Color in 2001~2010

Color	Swatches	Color	Swatches
R		YR	
Y		GY	
G		BG	
B		PB	
P		RP	
Achromatic color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2001 S/S~2010 S/S 남성 파리컬렉션에 모두 참여한 디자이너 5명인 드리스 반 노튼,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폴스미스의 선별한 사진자료 850장을 니트웨어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루엣은 자연스런 신체의 곡선을 따르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는데, 니트웨어의 조직과 사이즈에 따라 몸에 맞는 정도가 다르므로 시스 실루엣, 박시 실루엣, 튜블러 실루엣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자연스런 남성 신체를 나타내며 니트웨어의 특성을 잘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워 글라스 실루엣의 X 실루엣 느낌은 리브조직을 사용하여 남성미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Table 3. Characteristics by Elements of Knit Design

Elements	Division
Silhouet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aight silhouette, - X silhouette shown by using structures or gauge. 
Ya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mal Yarn, - Low frequency of fancy yarns. 
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in, - Next one was followed by rib structures and color one. 
Gau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ddle Gauge and Low Gauge in FW season. - Low frequency of high gauges in FW season, low gauges in SS 
Col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variety of Brown and Green group. 
Dec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w frequency. 

둘째, 원사는 장식사의 사용이 많지 않고 단순히 일반원사로 단색 니트웨어나 컬러 패턴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드리스 반 노튼은 헤어원사, 멜란지사, 로빙사 등 다양한 원사로 니트웨어를 선보였고, 에르메스는 F/W 시즌에 멜란지사를 자주 사용하였다. 장식사의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장식사의 경우 굵기나 편직 방법에 의해 디자인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며 조직에 의한 표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셋째, 조직을 살펴보면 모든 시즌에서 기본조직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카드 조직, 리브조직 순이었다. 플레인 조직은 단색으로 많이 표현되었고, 리브조직은 전체 시즌 중 2001 S/S부터 2005 F/W까지 비교적 많이 나타났고, 그 이후 시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자카드 조직은 에르메스의 작품에서 사용된 빈도가 높았고, 인타샤 조직은 폴 스미스가 전 시즌 중 꾸준히 이 조직을 많이 사용하여 다양한 패턴을 표현하였다. 플레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직이 편직방법에 의해 두께감이 있어 F/W시즌에 더 많이 나타났다.

넷째, 게이지는 모든 시즌에 가는 원사로 얇은 상의 아이템을

많이 선보이고 있었고, 낮은 빈도로 로우게이지의 아이템이 F/W 시즌 뿐 아니라 S/S 시즌에도 나타났다. 하이게이지의 특성을 살려 시스루효과를 나타내거나 컬러 자카드로 적당한 두께의 느낌을 게이지로 조절하고, 로우게이지로는 시즌에 맞게 원사 텍스처와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니트웨어의 디자인 시 원사의 특성, 게이지와 조직의 조화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아이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장식기법의 요소는 다른 조직에서보다 플레인 조직에서 장식기법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수공예적 기법 중에서도 보텀, 네크라인, 커프스의 끝 배색의 빈도가 높은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 장식에 의한 표현의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은 니트웨어의 자체 미를 두드러지게 나타낸 파리컬렉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색채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브라운, 카키컬러를 중심으로 빨강계열, 파랑계열의 밝은 톤의 유채색이 나타나고 있었다. 밝은 톤은 베이지계열이나 카키계열로 사용되었으며, SS시즌에 차분한 톤의 컬러와 높은 채도를 가진 화려한 톤의 컬러가 나타났으나 전 시즌 넓은 범위로 무채색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파리컬렉션의 남성 니트웨어는 일반원사로 플레인 조직을 하이게이지로 편직한 무채색톤의 스트레이트실루엣이 대표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남성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경향 중 조형요소에 대한 연구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남성니트웨어가 요구되는 현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Kim, K. H. (2011, July 20). Women's fashion market is larger than men's. Retrieved February 28, 2012, from <http://www.newstomato.com/>
- Kim, M. J. (2004). *복식미학 강의 [Teaching of fashion aesthetics]*. Seoul: Kyomunsa, p.147, p.162.
- Kim, J. Y. (2004). The study on modern men's fashion in Paris collection. Master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K. H., & Kim, Y. K. (2004). *남성 디자인 [Men's design]*. Seoul: Kyomunsa, pp.12~13.
- New contemporary generation open. (2011, November). *Fashionbiz*. p.167.
- Park, K. Y., . (2006). Design, manufacture and trend of fancy knitting yarns. *Fash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3, p.40.
- Park, M. H. (2011). Phenomena of mixture in high.low class culture in contemporary knit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4), p.39.
- Park, Y. S., & Lee, H. J.(1998). *Color & Design*. Seoul: Kyomunsa, p.67.
- Lee, S. A., & Lee, Y. H. (2009). An application of knit design process using a knit CAD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10), p.122.
- Lee, S. A., & Lee, Y. H. (2012). The design characteristic in contemporary men's knit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4), p.95.
- Lee, E. Y. (1975). *복식의장학 [Fashion design]*. Seoul: Kyomunsa, pp.72-74.
-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2002). *COLORIST Theory*. Seoul: Kookje, p.15.
- Cho, K. H., & Lee, H. S. (2004). *패션미학[Fashion aesthetics]*. Seoul: Suhacksa, p.334
- Hong, M. H., & Choi, K. M. (2009). *Knit Design*. Paju: Kyomunsa, p.14.
- David J. S. (1989). *Knitting Technology*. London: Technomic Publishing Company, p.39., p.146., p.193.
- Lisa, D. S., & Marilyn, H. (2008). *Designing a Knitwear Collection*. New York: Fairchild Books & Visuals, p.1., p.136.
- Richard, S., & Jenny, U. (2006). *The Fundamental of Fashion Design*. London: ava books, pp.84~85.
- 大井義雄 & 川崎秀昭 (2007). *色彩[Color]*. Tokyo: Nippon color research business corporation, p.19.
- All collection pictures were Retrieved February 28, 2012, from <http://www.firsrvviewkorea.co.kr>